

아
니
냐

신자들은 통상 자신이 회원이 되어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교회를 '우리 교회'라고 부른다.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를 '우리 교회'라 하지 않고 '당신네 교회'라 한다면 이상한 일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라는 말은 그 자체로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문제는 '우리'라는 말을 어떤 의미로 사용하느냐 하는 것이다.

자명한 이야기

인류는 보기에 따라 하나일 수도 있고 둘일 수도 있다. 그냥 사람이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인류는 하나이다. 그러나 성경은 두 개의 인류를 말한다. 하나는 아담에게 속해서 하나님을 떠나 존재하는 인류이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하는 인류이다(창 3:15; 롬 5:12-21). 이 두 인류는 공간적으로는 함께하지만 영적으로는 다른 세계에 살고 있으며, 때가 되면 공간적으로도 영원히 분리될 것이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은 '우리 신자들'이라는 말을 한다. 이 말은 엄밀하게 말하면 아담에게 속하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가리킨다(물론 그들 믿음이 참 믿음이어야 한다는 조건은 있다.) 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을 경우에 따라서는 그리스도의 교회라고도 한다. 교회라는 말이 원래 '무리'라는 의미를 가지니까, 그리스도의 교회란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의 무리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몇 개인가? 당연히 하나이다.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기' 때문이다(엡 4:5-6). 그러므로 '우리 교회'라고 할 때에는 하나인 그리스도의 교회 속에 자신도 속해 있다는 의미를 기억하고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조금 복잡한 이야기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현실 속에는 많은 '교회들'이 존재한다. 현실에 존재하는 이 많은 '교회들'과 하나의 교회는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그 답은 그리 어렵지 않다. 많은 교회들은 어느 특정한 시대에 어느 특정한 곳에 모인 그리스도의 신자들의 무리이다. 이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오랜 역사를 지닌 채 광범위하게 존재하기 때문이다.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이 되면 그들이 전부 모여서 함께 살겠지만, 그 전까지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신자들이 서로 다른 시기에 서로 다른 곳에 존재하므로 당연히 많은 '교회들'이 있게 된다. 하지만 이 많은 교회들은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해 있으므로 결국 교회는 하나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라는 말은 이중적 의미를 가지게 된다. 하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의 무리를 가리킬 수도 있고, 다른 하나는 자신이 속해 있는 어떤 시기, 어떤 장소에 존재하는 회중을 가리킬 수도 있다. 오늘날 '우리 교회'라고 하면 대부분 자신이 지금 속해 있는 하나의 회중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될 것이다.

좀 더 나아가서 조금 복잡한 문제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세력이 역사 속에서 함께 활동해 왔기 때문이다. 사탄 혹은 마귀라고 하는 악한 인격자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교회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에 위협이 되며 문제를 어렵게 만든다. 그는 자기의 종들을 교회 속에 침투시켜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무너뜨리려 노력한다.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궤환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고후 11:13-15). 이 구절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사정을 두고 한 말이지만, 이 일은 당대로 끝난 것이 아니라 교회사 속에 죽어 있어 왔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이다. 성경에는 이 거짓 사도와 거짓 일꾼들에 대한 많



황영철 총신대에서 신약학(Ph.D.)을 수학과 영국 University of Surrey에서 에베소서 연구하여 학위를 마치고 현재 성의교회 목사로 섬기고 있다. 저서로는 「이 비밀이 크도다」, 「중생과 윤리」, 「다시 겸손을 말하다」 등이 있으며, 역서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등 다수가 있다.

은 경고와 가르침이 있다. 에베소 교회는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으로 인해 칭찬을 받았다(계 2:2). 오늘날의 교회도 이 일을 해야 한다.

그래서 건전한 그리스도의 교회로 구성된 교단들은, 스스로 교회라고 주장하지만 교회가 아닌 종교 집단을 조사하여 그 실체를 밝히는 일을 해 왔다. 곧 이단을 가려내는 활동이다. 이단이란 삼위일체,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구원론과 같은 성경의 핵심적인 교리들에서 벗어나 있으면서도 스스로 하나님의 교회에 속했다고 주장하는 집단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서, 여호와의 증인은 신구약 성경을 믿는다고 주장하지만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고, 구원론이 잘못되어 있어서 이단이다. 여호와의 증인은 좀 유표하지만, 오늘날 한국 교회에는 이런 이단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그런 자들의 집회가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닌 것을 밝혀 경고하고, 잘 알지 못하는 신자들이 거기에 빠져드는 것을 막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하는 중요한 일들 중의 하나이다. 이것을 위해서 평소에 교리 교육을 부지런히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상당히 복잡한 이야기

그런데 이것보다 좀 더 애매한 경우들이 있다. 이단이라고 규정은 안되지만 저 무리를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불러야 하나 말아야 하나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발생한다. 그래서 벨기에 신앙 고백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한 답을 제공할 필요를 느끼고 참 교회의 표지를 가르쳤다. 29항은 이런 말로 시작한다. “우리는 어느 것이 참된 교회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부지런히 매우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고 믿는다—이는 오늘날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스스로 ‘교회’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신앙고백 작성 시의 상황은 신약시대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오늘날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 말은 교회 내에 신자와 불신자가 뒤섞여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교회’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어떤 종교 집단에 대한 것임을 밝힌 후에, 신앙고백은 참 교회의 표지를 이렇게 밝힌다. “참된 교회는 다음과 같은 표지들에 의해서 인식될 수 있다: 그 교회는 복음을 순수하게 전파하는 일을 수행한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서 제정하신 성례를 순결하게 실행한다; 오류를 고치기 위한 권



징을 행한다.” 요약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거나 혼잡스럽게 하지 말고, 그 말씀을 순결하게 언어로 전파하고, 성례로 기념하고, 권징으로 실천한다면, 그런 교회는 일단 참 교회의 외적인 표지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이런 외적인 표지를 가지고 있지 않는 종교 집단은 스스로 교회라는 이름을 사용한다고 해도 참된 교회라고 할 수 없다.

엄청 복잡한 이야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어떤 교회가 정통적인 신앙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는 하는데 실제로 가르치고 실천하는 내용이 성경과 다르면 어떻게 보아야 할까?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는 영혼을 구원하지만 병도 낫게 하고 세상적인 성공도 가져다 준다고 가르친다면 어떨까? 신자는 세상적으로 성공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가르치면 어떻게 보아야 할까? 하나님의 자비가 크시다는 사실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은연중에 사람들이 죄짓기를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면 어떻게 되는가? 교회당을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하여 교회를 성전이라고 부르면서 헌금을 모은다면 어떨까? 세상적인 눈으로 보아도 법을 어긴 것이 너무 분명하여 세상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금고형이나 벌금형을 받은 목사를 여전히 존경하면서 따르는 교회는 어떤가? 이런 교회를 참된 의미의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참된 교회이기는 한데 아직 어린 교회라고 해야 할까? 이런 교회에 다니는 신자들일수록 더욱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우리 목사님’ 하는 것은 아이러니이다.

‘우리 교회’는 어떤가?

이제 눈을 돌려 우리 자신이 다니고 있는 교회를 살펴보자. ‘우리 교회’는 역사적인 기독교가 확정해 놓은 참 교회의 표지를 갖추고 있는가? 거기서 더 나아가 ‘우리 교회’는 거룩한 보편의 교회에 속해 있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내적으로 통일되어 있으며, 죄를 미워하고 의를 추구하는 거룩한 위치에 있는가? 사도의 가르침을 충실하게 가르침으로 사도의 교훈 위에서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 신앙고백들은 하나같이 지상에는 완전한 교회가 없고, 모두가 어느 만큼의 부족과 불결 속에 있다고 가르친다. 즉 아무리 복음을 순결하게 전하고, 아무리 말씀에 따라 성례를 실행하고, 아무리 권징을 열심히 해도 지상에 존재하는 각각의 교회들에는 언제나 불결과 부족이 있다는 뜻이다. 이 부족과 불결이 없는 완전한 교회는 지상에는 없고 오직 하늘에만 있다. 지금도 하늘에 있지만 앞으로 그 완전한 모습이 드러날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지상에 존재하는 우리 교회도 당연히 부족과 불결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제대로 된 교회일수록 자기 교회가 연약하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을 입에 달고 다니지 않을 것이다. 이는 마치 겸손한 사람일수록 스스로 자기를 교만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비슷하다. 성자란 자기가 죄인임을 더욱 깊이 느끼고 알고 있는 죄인이라는 유명한 말이 있지 않은가.

계속해야 하는 힘든 일

지혜로운 신자라면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할 것이다. 첫째는 어떤 것이 참된 교회인지에 대해 분명한 지식을 가져야 한다. 말도 안 되는 일을 일삼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는 ‘아무리 종교적인 이유를 들이대도 그건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고 부족과 연약을 깨닫고 부지런히 고쳐 나가야 한다. ‘우리 교회’에 대한 모든 자긍심은 영적인 독약이다. 교만을 부추겨 자신의 험벗음을 보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찌하노 우리는 나오노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롬 3:9) 벨기에 신앙고백 29항 한 구절을 마지막으로 인용하겠다. “거짓된 교회는 자신과 자신이 만든 규정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은 권위를 부여한다.” 당시의 로마 카톨릭 교회를 염두에 둔 이 말은 오늘날 많은 ‘우리 교회’에도 적용된다. 